



봉우 컬럼

평화가 최우선!

4·27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예전에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9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 덕분이라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런 평화 무드에도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왜 그럴까? 그들은 이념의 눈으로, 자기감정으로 이 현상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가 존재해야 여야도 있는 것이고, 나라가 평화를 누릴 때 보수도 진보도 있는 것 아닌가. 나도 국가가 존립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나라의 평화'라는 목표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작금의 사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주시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렘29:11)고 말씀하신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는 준비되지 않은 자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로 이 나라의 평화와 평안을 준비해왔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다. "노벨평화상은 트럼프에게, 우리는 오직 평화만 원한다."는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평화다. 우리의 소원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다. 그 문이 지금 열렸으니 감사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기도해야 한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또한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쫓기지 않고 이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더욱이 북한이 변심하거나 어떤 계락을 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뤄지기에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나는 믿는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 기도, 매진하자.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도록,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믿음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오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은 노아이다.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피신할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노아에게 떨어졌다(창6:13~22).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도 비는 내렸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일상을 살면서 노아의 행동을 보고 비웃었을 것이 분명하다. 허구한 날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전과 다른 세월에 흐르고 있건만, 노아라는 노천네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헛소리나 지껄이고, 그의

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 세월이 흘렀다. 남북분단의 역사는 더 오랜 70년이다. 그 오랜 기간 남북의 통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왔을까? 그러나 우리가 더욱 확실하는 비는 다른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왔기 때문이다. 2013년에 시작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9차에 걸쳐 진행되며 우리는 피한방을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다. 작금의 사건들은 그 후에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기에 더욱 벅찬 기대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목사님은 지난주일, 베네수엘라(Venezuela) 승리의 광장 100만 집회의 비전과 오는 8월 진행될 베트남(Vietnam) 집회에

비 내리는 승리의 광장을 돌며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산국가 베트남에서 정부의 공식허가 아래 전 개신교단이 연합하여 나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오는 6월초 각 교단 총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인사들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8월초에는 목회자 5천명 세미나와 20,000명이 모이는 대집회가 호치민시(Ho Chi Minh city)에서 진행됩니다.

믿음이 있기에 꿈꾸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참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믿는 자의 특권이요, 믿는 자만이 기다림의 미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믿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곧 하나



카라카스 승리의 광장 100만 집회를 준비하겠다는 베네수엘라 하나님의 성회 교단 총회장 루이스 목사(왼쪽)

가족들까지 함께 매일 뚝딱거리며 뭘 짓고 있으니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에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집행된다.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한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정말 100년이 넘게 기다릴 수 있을까?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가 홍수 이후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냈건, 자식을 저주했건, 인간이기에 실수한 사건들이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대해 광고하시며 기다림의 미학을 설교하셨다.

"기다림의 미학을 아십니까? 이는 믿는 자만이 추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본케(Bonnke) 목사의 나이지리아(Nigeria) 100만 집회 사진을 보며 이 꿈을 키워온 것이 벌써 15년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루이스(Luis)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 집회를 도왔던 인물이 후보로 나왔는데 당선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루이스 목사는 100만 집회를 반드시 하겠다고 합니다. 10년 전, 수도 카라카스(Caracas)를 방문했을 때,

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내 할 일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으로,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 응답의 성취가 주는 기쁨은 받는 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것 아니던가. 이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평화통일의 대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자. 또한 오는 8월 베트남 집회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8:16~20)



미래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라

우리 부모님은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지으셨고, 장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손에 쥔 돈으로 무조건 땅을 샀습니다. 땅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겼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예측대로 70년대를 지나면서 땅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미래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풍요로움이나 안식을 취하기보다 내일, 미래를 위해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때 미래는 꽃다발을 안고 달려올 것입니다.

농사꾼은 아무리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어려워도 종자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종자가 있어야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번 돈으로 땅에 투자하지 않고 그 때 썼다면 자식들 키우기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자식들을 좀 더 잘 먹이고 입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땅을 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후대 자식들을 다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최고의 이익을 내는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왜 가치 있는 투자냐 하면 그것이야말로 철저한 사후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사후를 준비하는 자는 더욱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전도에 힘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행히 살아있었고, 다음 날 바울은 괴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그만큼 전도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알기에 돈 버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덤벼들듯, 바울에게는 전도가 돈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

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는 그의 고백이 이를 증명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것이기에 바울이 그랬을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딤후4:7~8). 그날 하나님이 친히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는 자가

장큰 투자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만 주는 특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과 특권이 놓여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투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8~20)고 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4:2~5).

여러분, 전도는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투자종목

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지라 전도의 상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계십니다. 투자 대비 가장 큰 이윤이 창출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여러분, 저의 꿈은 나중에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고,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눅22:29~30). 이것은 꿈만 꾸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지구

촌을 누비며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8월이면 베트남의 영혼구원을 위해 떠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꺼번에 삼천 명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곳에서도 그것이 다 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욕도 먹고, 때로는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욕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뿐입니다. 남들이 상 받을 때 침 흘리며 부러워해야 하고, 남들이 면류관을 쓸 때 ‘나도 할 꼴~’ 하며 후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믿음의 선전들도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칼에 죽은 자도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에 받을 상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

박하였느니라”(마5:11~12).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

넉넉하지 않은데 안 쓰고 안 먹고 투자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 계란을 먹어치우면 당장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암탉이 매일 계란을 낳아주는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전도 안 하면 편하지요. 욕먹을 일도 없고, 괜히 굶실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돈도 안 들어가고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하면 내세에 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여건이 안 되어도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거둘 수 있듯, 열심히 전도하면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13:44~46)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천국은 가장 귀한 것이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꼭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행여 누가 알까봐, 혹시 정보가 새어나갈까 쉬쉬합니다. 혼자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정보는 나눠야 합니다. 금은보화를 주고라도 소유해야 할 것이 천국임을 알리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택한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나누려고 분주한 당신의 발길이 아름답고(롬10:15),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미래 가장 가치 있는 투자,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받고 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단지 네 개의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신학자는 이것을 “오라, 받으라, 가라,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세리, 죄인, 어부, 창녀, 병든 자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도 장벽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격의 없는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55:1).

예수님은 곁으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연약한 자에게 강한 마음을, 강박한 자에게 청결함과 온유를, 탐욕한 자에게 긍휼을, 다투는 자에게 화평을, 핍박받는 자에게 평온을 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사61:3).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의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혼자만 그 안에 안주하면서 즐기지 말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말로 천 냥 빚을 다 갚는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

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는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은혜로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생의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뿐만 아니라 해박한 성경 지식이 필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못 나누어주면 걱정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못 가질까봐 걱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량없이 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응이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닐까요?

이관섭 장로
kslee@krii.re.kr

탁월함을 향한 습관

‘낙숫물이 뿔뿔을 뚫는다’는 속담이 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바위에 부으면 바위를 그저 젖게 만들 뿐이지만, 한 방울씩 꾸준히 떨어지는 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위를 깊게 깎아낸다는 말이다.

열정에 휩싸이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감정이 들지만 나의 경험상 그것은 그때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야심차게 신년계획을 세우지만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지는 못하는 것처럼, 일순간에 드는 감정은 돌만 젖게 만들 뿐 돌을 깎지는 못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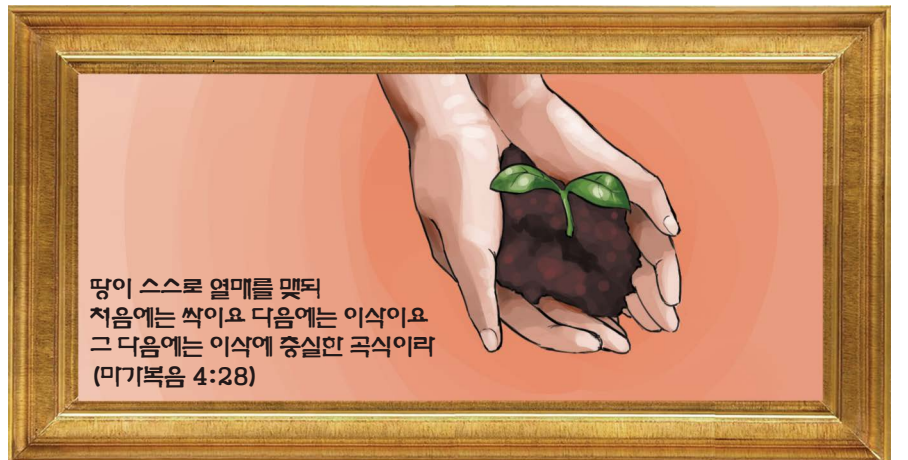
어느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열정에 차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인 듯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일들을 한다. 그렇게 보면 열정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뜨거운 열기를 순간에 표출해내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끈기에 가깝다. 마음속 뜨거운 열기가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일을 유지하고 완결 짓는 것은 결국 꾸준함이

란 생각이 든다. 그들은 낙숫물이 매일 바위에 떨어지듯 매일 매일의 외로운 노력을 통해 조금씩 더 성장했을 뿐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순간의 열정, 냄비 같은 열정 때문이다. 꾸준히 하는 습관이 없어서일 뿐이다. 그러므로 핑계거리를 찾기보다는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작은 습관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미래에는 탁월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것 같은 사람이나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만 하기보다 매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탁월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일 것 같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습관들을 훈련해 일상의 태도를 거룩하게 만들어보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

김성일 형제
cre8tor@naver.com



:: 진리의 학당 ::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 (시96:1~13, 행7:54~60)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니 곧 빛이시다(요일1:5). ‘믿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라는 신념적 주장보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이를 위해 가르치는 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참 신앙이 된다.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품성과 역사는 모두 그 말씀에 나타나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영광이 있다(요1:1~4).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의 영광이시다(요1:14). 그 영광을 후사이신 아들에게 주셨으므로(요17:5, 8:12),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어떻게 보이느냐? 은혜와 진리로 보게 된다(요1:14).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함은 그 영광을 소유했다 함이요, ‘진리를 안다’함은 곧 그 독생자를 모셨다 함이니 이러한 절차로써 성령이 임하여 계신 나의 심령도 성전이므로(고전3:16) 하늘보좌에 있는 영광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16:14).

스테반이 본 영광을 사울은 몰랐다(행7:54~60).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아는 자에게 돌질하고 죽였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으로 믿어졌다. 사울은 그늘진 인생이요, 스테반은 빛난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어둠은 눈을 멀게 하여 그 앞을 막아선다(요일2:8~11). 어두운 길에 행하고 있던 사울에게 참 빛이 비췌다(행22:6~8). 예수님의 영광이 사울의 심령에 비취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빛의 인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체이시다(히1:2~3). 마치 태양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광을 비취는 빛이시다. 이 빛을 우리 심령에 비취 주시므로써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을 받는다(고후4:3~6).

죄가 불행한 것은 영광을 가로막아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롬3:23). 죄는 미련한 마음이 우둔하고 어두워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 변하여 썩어질 것으로 우상을 삼는다(롬1:21~23). 마

음이 어두우니 번민, 갈등, 부정적 생각, 불길한 생각 등을 떨쳐내지 못하고 심란한 일, 두려운 일로 고통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견할 능력이 없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밝은 생각으로 바뀐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요11:40),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 떠오르고, 치료의 광선이 발한다(말4:2),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요14:13), 부활할 때 홀연히 변화되어 그 영광의 보좌에 올라간다(고전15:51)’고 빛이신 그가 말씀하셨다. 그 생명의 빛인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요8:11). 이 땅의 고난이나 슬픔을 인내해야 하는 것은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다(롬8:16~17). 믿음에 따르는 표적으로 영광을 본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요2:11).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영광이요, 흑암에는(유6) 사망과 거짓뿐이다. 이 흑암

에 갇혀있는 자가 누구인가? 흑암의 권세자 마귀 아닌가(골1:13)? 태양 아래서는 열매든지 숨고 조작하고 왕 노릇하므로 도처에 마귀의 성질이 나타나 죽음과 거짓이 횡행하고 있지만, 영광 앞에서는 도무지 숨지 못하고 망하고 있지 않는가(막1:23~27)?

죄인의 슬픔이란 바로 흑암의 권세아래 사는 것이니, 곧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것이다. 영광이 있지만 그것 모르고 여전히 그늘 속에 살던 인생이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멸망할 자에게는 멀고도 먼 얘기다. 거룩함이 없으면 영광은 비취지 않는다. 비록 예배하고 정성들인다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영광은 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영광은 꿈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알면서도 게을리 기도하지 않고 교만해서 영광을 상실한 채 산다면 얼마나 참담한가? 영광의 권세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용하자!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시24:10).

박덕규 목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진주를 주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마7:6)는 말씀은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신 말씀이다. 그럼에도 나는 때번 적절하지 않은 곳에 선의를 베풀고는 실의에 빠진다.

약 3개월 동안 대입자소서 첨삭을 봐준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이 자신의 진정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글을 써서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학부모에게 항의가 있었다. 돈 낸 만큼 해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자소서를 대리 작성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학생에게 선생님들이 대리 작성한 글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짜증을 부렸다.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실된 선생이나 아이

의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선생을 원하는 것이 아닌 이상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았다.

얼마 전, 한 단체에서 오래 준비해온 행사에 급히 추가모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고생해온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모금에 참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생각이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웅얼한 생각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내 능력이 되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자 손길을 내미는데 왜 그들은 그 정도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웠다. 내가 가진 진주를 그들에게 주고 싶지만 그 학생도, 그 단체도 왜 받지를 못하는지 답답했다. 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며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아는 이는 역시 하나님 밖에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진정시켰다. 답답해 성경책을 뒤적거려다 로마서를 읽게 되었다.

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신원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다(롬12:17~21). 그 뒤에 이어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내 선의가 배척을 당할 때만큼 속상한 일은 없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니 화목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내 선의가 선의 그대로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목사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주시기를’ 자주 기도해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진 진주의 값어치를 알고 나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남의 축복을 다시 한 번 기도해본다.

전훈지 자매
ppjee@hanmail.net

물과 피를 쏟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죄 값을 속량하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

악한 마귀의 꾀계에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바보가 되어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일에 목숨까지 걸 때가 있습니다.

호주의 한 청년이 죽은 뒤에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해안을 지나던 중 여자 친구와 함께 실종되었습니다. 배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여자 친구가 배에서 미끄러져 어둔 바다 속에 빠지자 그 청년은 지

체 없이 깊은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실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보다 더 무모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송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죄인 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상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온갖 수욕을 다 당하시고

☞ 인간은 꿈과 이상을 먹고사는 존재다
Human beings grow off of dreams and visions.
人是靠梦想和理想而生存的存在。

☞ 꿈이 있는 한 문벌 학력 나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Educational background and age don't matter if you have a dream.
只要有梦想,那么出身,学历,年龄就不成问题。

갯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 프롬인터넷 ::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갯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에요?” “갯이요.” “아니 갯이라니! 갯(God)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에요?” 양반은 우리나라 이름을 한자(漢字)로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朝鮮)이요! ‘아침 朝 + 깨끗할 鮮’ 이렇게 씁니다.”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

침의 나라, Morning calm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朝’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열+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자를 쓰고 또 열+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십자가+十, 날일+日, 십자가+十, 달월+月.”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日)에도 십자가(十), 밤(月)에도 십자가(十),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선+鮮자도 풀이해주시요.” “물고기魚 옆에 양+羊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 교회의 상징인 ‘익투스’

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고, 또 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鮮자는 완전히 신앙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길 “朝鮮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Chosen People이라고 씁니다.” “와우! 선택된(Chosen) 사람들(People),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選民)입니다!”

독서의 놀라운 힘

작년 2017년 한해는 나에게 있어 놀라운 변화의 한 해였다. 그 이유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7년 첫째 주 이시대 목사님의 수요일에 배 설교, ‘성장은 전력투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직장생활에 그냥 만족하며 자기계발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을 읽게점이 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읽어야겠구나.’라고 마음먹게 되었다.

설교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잡아보았다. 1주일에 두 권을 읽으면 1년 52주 총 104권이 되니 1년에 100권을 넘게 읽게 되는 셈이었기에, ‘이번 주부터 1주일에 2권씩 읽어보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바로 도전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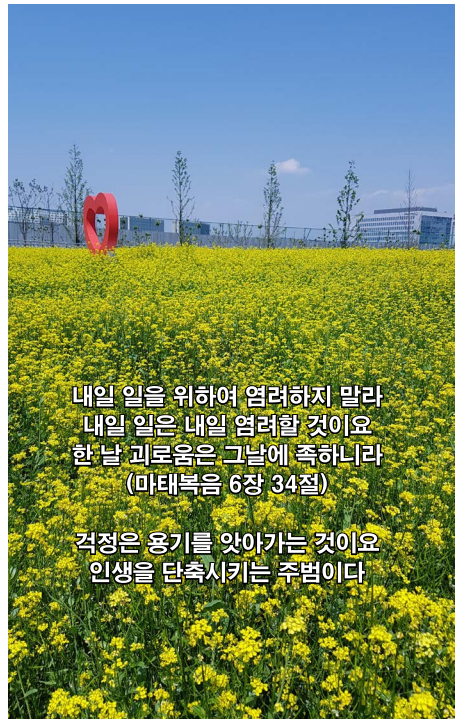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웠다. 직장 생활하랴, 교회 생활하랴 1주일에 2권 읽기 목표 달성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 습관이 잡히며 찜찜이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어느덧 읽기 속도도 빨라졌다. 결국 연말이 되어 목표한 100권을 모두 완독하였고, 독서하며 깨달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블로그에 올려 블로그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속도를 내어 2018년 올해에는 1주일에 3권을 읽고 있다.

책을 꾸준히 읽다 보니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예전에 안 보이던 부분들이,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 성장과 성공의 길로 향하는 철길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는지 알 것 같고, 그 위에 나라는 기차를 올려놓기 위해 매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지식과 지혜의 향기를 내는 젊은이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독서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다 보면 언젠간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과 지혜의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걱정은 용기를 앗아가는 것이요
인생을 단축시키는 주범이다